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7. 10.(금) 조간 < 7. 9.(목) 14:00 >

기술보호·범죄예방 한자리에서 안내

- 부산중기청·부산경찰청, 기술보호 및 범죄예방 합동설명회 개최
- 기술보호 지원사업, 산업기술 유출·노쇼사기 예방 등 현장 안내

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(청장 이청일, 이하 부산중기청)은 7월 9일 부산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부산경찰청과 함께「부산지역 기술보호 및 범죄예방 합동설명회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을 높이고, 기술탈취 피해 및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 행사에는 중소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과 산업보안협의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.

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호 지원제도와 산업기술 유출 예방, 랜섬웨어 및 안전사고 예방, 노쇼사기 대응방안 등이 안내됐다.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하고, 기업이 기술분쟁이나 보안 애로를 겪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했다.

부산경찰청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대책, 날로 교묘해지는 노쇼사기의 유형과 예방법, 단 한 번의 감염으로 기업활동의 마비를 초래하는 랜섬웨어 피해예방과 대응요령,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례와 안전대책을 설명하며 기업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.

또한, 행사장에는 상담 테이블을 별도로 마련해 특허·법률, 정보보안, 산업기술 유출, 중대재해처벌, 랜섬웨어 피해, 노쇼 사기 등 분야별 상담이 진행됐다. 참석 기업들은 설명회 이후에도 개별 상담을 통해 기술보호와 범죄예방 관련 애로사항을 문의할 수 있었다.

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“중소기업의 기술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, 기술유출과 각종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중요하다”라며, “부산중기청은 부산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호 지원과 상담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	책임자	과 장	김길상 (051-601-5140)
		담당자	주무관	김신자 (051-601-514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 | **참석자 모집 홍보 포스터**

